

전남교육청, “2022년 진로진학지원 시작 ‘꿈다’로 달린다”

‘찾아가는 이동 진학상담 전용차량’ 서비스 제공해 대입지원관 4명 각 권역 배치, 전문적인 지원 나서

전라남도교육청이 14일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권역에 설치된 진학지원센터를 새롭게 단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진학지원센터 인력을 보강하고 운영 시스템을 체계화해 ‘누구나! 쉽게! 어디서나!’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이 손쉽게 진로진학

상담을 할 있도록 홈페이지(<https://jdream.jne.go.kr>)를 새롭게 단장하고 입학사정관 출신 대입 전문가인 대입지원관 4명을 각 권역에 배치해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진학지원센터 대표전화(1644-8113)를 개통하고 권역별 대입코디네이터를 추가로 배치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춰 이동상담 전용차

량을 운영해 전남 도내 전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권역 별 진로진학지원센터 새 단장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진로진학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19년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를 개소한 이후 연 2,000건 이상의 진로진학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입정보 박람회, 대입설명회 등 다양한 진로진학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환기자



해남동초,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해남동초등학교는 지난 10일에 아침 본교 정문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없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본 캠페인은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며, ‘학교폭력 없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해남 경찰서와 해남군, 학부모회 및 본교 전교학생회 및 학급 임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짐을 하고,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캠페인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정문에서 경찰,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구호를 외치며 진행되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짐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학교 폭력 예방 문구가 새겨진



핸드폰 클리너, 마스크, 형광펜, 볼펜, 호루라기를 나누어주었다.

해남동초등학교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학교, 더 나아가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첫걸음을 떼었다. 본교는 학교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교우관계 개선 및 학교폭력 방에 더욱 힘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제로(zero)의 학생들의 웃음이 건강할 웃음이 넘치는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장흥장평초, “꼬마 농부 꽃밭으로 유학왔어요”

농산어촌 유학생 4가구, 7명 전입

장흥장평초등학교에서는 지난 10일 코로나 19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생태전환 학습장으로서 학교 환경을 예쁘게 조성하고자 꽃을 심었다. 본교 꼬마농부 프로그램으로 펜지, 페튜니아 등 예쁜 꽃을 심어 학생들의 생활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정서도 예쁘게 가꾸고자 하였다.

특히 올해는 장평초등학교에 농산어촌 유학생 7명(4가구)가 전입을 들어와 지난 2일 입학식 때 본교학부모와 농산어촌 학부모가 인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지만 서로 소통할 기회가 적어, 꼬마농부 꽃심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하는 장으로 활용하였다.

유학생학부모님 중 오00님은 “좋다~좋다~ 너무 좋다. 꽃밭기도 사람도 너무 좋다. 코로나 19로 도시에서는 학부모님들이 함께 만나지도 못하고 마음도 많이 지쳐있었는데 장평초로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유학생 4학년 서00은 “평생 있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행복해 했으며, 5년 동안 혼자 공부를 했던 학생은 “친구가 생겨 공부도 같이하고 꽃도 같이 심어 좋다”라고 말했다.

장평초등학교는 “꼬마농부 꽃밭가꾸기에 적극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하며 우리학교가 마을의 아름다운 꽃밭이 되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말했다.

꽃가꾸기를 통한 생태환경 체험활동으로 우리학교를 우리 손으로 예쁘게 꾸미겠다는 의



지로 적극 참여하여 학교가 아름다워 졌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학교정원의 꽃을 볼 수 있어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건강한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기대해 본다. 또한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 농촌학교의 아름다움과 정(情)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오늘이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 시간을 간직하길 기대해 본다.

정흥=김도영기자

순천교육청, ‘전남농산어촌유학생 순천살이’



순천교육지원청은 최근 양일간 2022. 1기 전남농산어촌유학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초등학교 2교(나안초, 월등초)와 중학교 1교(순천낙안중), 유학센터, 유학 마을을 차례

로 방문한다. 2022년 순천에서 농산어촌유학을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수는 12명, 2021. 1기와 2기 연장신청을 통하여 6개월~1년 이상을 순천살이에 적응 중인 유학생이 15명으로 모두 27명의 유학생들이 순천에서 농촌살이 시즌2를 시작하게 된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오미크론 변이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모두가 빛나는 미래, 함께하는 순천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기자

장성 삼서초-장성공공도서관, 독서·토론·글쓰기 수업 실시



삼서초등학교는 지난 10일 6학년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장성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독서·토론·글쓰기 수업을 실시하였다.

6학년 학생 13명 대상

독서·토론·글쓰기 수업의 첫 시간인 이날 수업에서는 아이스브레이킹과 자기 소개, 사전에 제공된 주제 도서(별빛 전사 소은하 -전수경 지음)에 대한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장성공공도서관 소속 전문강사 2명이 지원하는 독서·토론·글쓰기 수업은 전체 16차시에 걸쳐 주제 도서 읽기, 독서·토론 개념 알아보기, 독서·토론하기, 글쓰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학생들의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 신장, 그리고 바람직한 토론문화 정착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6학년 박종현 학생은 “오늘 자기 소개를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하니 재미있었고, 책 한 권을 친구들과 함께 읽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정말 기대된다”라며 독서·토론·수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삼서초 김형욱 교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나 앞으로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학생 교육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